

협회, 전문지 기자와 간담회 개최



▲ 기자간담회 모습

협회는 지난 11월 25일 김종철 부회장 주재로 주택관련 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분양가 원가내역 공개와 신규주택 분양가격 규제 등에 대한 법안이 입법추진 되는데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민주당 이희규 의원 대표발의로 주택법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주택분양가 원가내역 공개에 대해 협회는

기업 경영상의 중요 비밀과 경영 노하우 공개를 강제하는 것으로, 기업의 영리추구행위를 본질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입주자와의 마찰 심화로 주택공급의 급감을 불러올수 있고 주택업체의 차별화 경쟁 저하로 주택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택의 공사원가 공개 의무화를 위한 입법추진이 철회되기를 바랐다.

또 협회는 현재 설송웅 의원에 의해 입법 추진되고 있는 신규주택 분양가격 규제에 대해서도 주택가격 왜곡으로 투기수요를 조장시키고 건축비 및 택지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주택공급 기반약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주택의 품질 저하로 입주후 개조 비용 추가부담이 늘어 국가적인 자원 낭비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규주택 분양가격 규제는 종전의 원가연동제로 회귀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분양가격 규제를 위한 입법추진 역시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